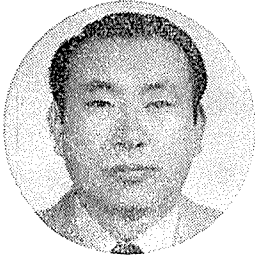


에너지源으로서의 原子力大規模發電에의 利用點에서 陣痛期를 맞이하여



原子力常任委員
李炳暉

그러나 間或 會員國의 招請에 依해서 日本의 東京, Mexico의 Mexico 市 등에서 열린적이 있었다.

今年은 브라질 政府의 招請에 依해 世界三大 美港의 하나이고 Carnival로서 有名한 Rio de Janeiro市의 아름다운 海邊에 面한 Nacional호 텔의 國際會議센터에서 9月 21일부터 29日까지 開催되었다. 韓國代表團은 다음과 같이 構成되었다.

首席代表 科學技術處長官 崔亨燮

交替首席代表 原子力常任委員 李炳暉

代表 駐브라질 韓國大使館 參事官 閔秀泓

代表 科學技術處 原子力局 原子爐技術課長 李根培

代表 外務部 邦文局 國際機構課 李愚祥

代表 韓國原子力研究所副所長 朱載陽

總 109會員國中 79個國代表團과 UN· 關聯專門機構 5個代表團 그리고 O.E.C.D의 原子力機構等多國間 協力機構에서 5個代表團과 原子力및 世界動力會議 등에서 5個代表團이 參席한 가운데 9月 21日 火曜日 午後 3時부터 작년도 총회 의 장직을 맡았었던 Poland의 Felicki교수의 司會로 第20次 國際原子力機構總會가 開會되었다.

總會 議長선출은 事前에 各會員國의 사무국에서 通告한데로 브라질 原子力委員會委員長 Carvalho教授가 滿場一致로 뽑혔다.

繼續해서 第184次 本會議로 移行하여 Eklund

國際原子力機構事務總長의 國際原子力機構의 과거 20年間의 업적과 向後 사업 방향에 대한 전망을 간추려 今般總會에서 판단해달라는 要旨의 演說이 있었다. 이어서 브라질 政府를 代表하여 副統領 Adalberto Pereira Dos Santos將軍의 歡迎辭와 UN事務總長 발트하임氏의 祝辭等으로 開會의 諸般節次가 進行되었다. 第2日인 22日水曜日부터 繼續해서 午前과 午後에 걸쳐 第185次 186次 本會議과 28日閉會時까지 191次 本會議를 通해 各國代表의 基調演說과 事業報告 그리고 重要한 議題를 處理通過시켰다.

總會期間中の 重要議題로서는

- 1) Nicaragua 新規會員加入承認
 - 2) PLO를 옵서버 資格으로 總會에 招請하는 問題
 - 3) 閉會日字 및 次期總會開催日字 決定
 - 4) IAEA 事業報告 및 貸借計定報告(1975年度)
 - 5) IAEA 長期事業計劃(1977~82) 및 豫算案(1977年度分)
 - 6) IAEA正規豫算에 대한 會員國의 分擔金
 - 7) 代表團의 信任狀 審査
 - 8) 理事國 選出
 - 9) 事務局 職員 年金委員會選出
 - 10) 1977年度 一般基金에 대한 自發的 寄與金
 - 11) 其他 理事會에서 回附된 案件等々이었다.
-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主要議題를 本會議에서 處理하기 위하여 全體委員會, 運營委員會 등에서 細部事項을 審議하여 本會議에 廻附함으로써 議題處理의 迅速을 期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議案處理의 결드려 23日 午後는 “食糧 및 農業分野의 原子力技術利用”이란 主題로

서 各國專門家들의 發表가 있었으며 各國에서의 이 分野의 最新技術紹介가 있었다.

總會 期間中の 公式議題外에 各會員國의 親善을 增進키 위한 社交行사가 거의 每日 저녁 베풀어졌고, 서독政府의 周旋으로 Otto Hahn原子船 見學과 브라질 政府의 周旋으로 原子力委員會와 原子力公社의 特別展示會 見學등 多彩로운 行사로 워어졌다.

韓國代表團은 今般總會에서 首席代表基調演說을 통해 다음 세가지 點을 力說하였다.

1) 原子力 發展技術提供

國際原子力機構 會員國家 相互間은 勿論, 特別히 先進國으로부터 開發途上 國家의 原子力發電所建設에 關한 諸般技術提供이 安全保障措置에 따라 圓滑하게 이룩되어야함 을 強調하였다.

2) 北傀의 核擴散禁止條約加入促求

우리나라는 核擴散 禁止條約에 加入하여 核에너지의 平和的 利用을 위한 國際協力を 增進하고 있으므로 北傀도 上記條約에 加入토록 促求하였다.

3) 原子力 技能者 訓練

原子力 技能者 訓練의 必要性을 強調하고 이에 대한 國際原子力機構의 積極的 支援을 促求하였다.

이번 總會에서도 例年과 마찬가지로 理事國選出에 對한 關聯會員國의 關心度는 매우 높았고 따라서 總會開會前부터 호텔로비나 各 社交行事情場에서의 接觸할 機會있는데로 幕後交涉이 매우 活潑히 이루어졌다.

特別히 例年과 다른 雰圍氣는 第3勢力 國家의 움직임이 매우 눈에 띄었다. 原來 UN專門機構로서 原子力의 平和利用을 振興助成하기 爲하여 20年前에 國際機構로서 發足한 國際原子力機構가 原子力專門機構의 範疇를 벗어나 議題審議決定過程에서 政治社會의 要因이 介在되기 始作한 點이다.



第20次 IAEA 總會 韓國代表

파레스타인 解放機構(P.L.O) 代表를 傭서버 資格으로 總會에 招請하겠다는 第3勢力 國家主 導로된 動議案의 多數決에 依한 票決通過는 UN 總會에서도 그리하였듯이 多數決原則을 利用한 UN專門機構範疇外의 일을 强行通過시킨 先例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 외에도 特記할만한 것으로 第20次 總會開會 바로 前週 金曜日에 있었던 理事會에서 國際原子力機構, 佛蘭西政府와 南아프리카共和國政府間의 安全措施適用에 關한 3者協定案이 上程되었을 때의 아프리카 諸國을 爲始한 第三勢力 國家의 南아프리카共和國에 對한 人種差別을 理由로 政治的 攻擊發言等을 爲始한 總會期間中에도 國際原子力機構로부터 南아프리카 共和國을 逐出코져하는 第3勢力의 幕後 움직임이 매우 活潑했었다. 그러나 이 問題는 原子力의 國際專門機構로서의 傳統을 자랑하는 國際原子力機構 事務總長과 美·蘇 兩強大國 代表團의 끈질긴 說得으로 逐出法議案 代身에 理事會의 常任理事國資格을 否認하는 決議案을 本會議 滿場一致로 通過시키는 線에서 政治的인 打開를 볼 수 있었다. 이와같이 例年과 유달리 第3勢力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으며 過去에 없었던 政治的 회오리바람을 몰고왔다. 主要代表의 基調演說과 Ek-lund事務總長의 演說을 통해 알 수 있는 先進國과 國際社會에서의 原子力平和利用에 關한 움직임은 大略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油類波動 以後 急激히 伸長된 開發途上國의 原子力發電計劃과 이에 必然的으로 隨伴되는 核然料週期技術의 傳播로 提起되는 核

擴散을 어떻게 하면 有效適切히 防止할 수 있겠는가?

이에 對해 先進 原子爐 및 核燃料 輸出國들은 輸出에 隨伴되는 安全保障措置를 더욱 強化해야겠다. 둘째, 核擴散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核燃料再處理가 濃縮施設을 多國地域 核燃料 센터에서만 가질 수 있겠 함으로써 共同監視를 通해 核擴散可能性을 未然에 防止하겠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關聯技術 및 技術情報까지도 非核保有國에 讓受를 徹底히 禁止하겠다는 立場이다. 이에 反擴散非核保有의 開發途上國 立場은 核擴散禁止 條約을 遵守하는 限 安全措施強化나 核燃料再處理나 濃縮施設을 獨自의으로 保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一國의 基幹에너지 産業인 原子力發電을 他國依存型으로 弱화시키며 原子力平和利用을 阻害할 뿐더러 배부른 나라의 지나친 忌憂라는 反論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2) 우라늄 資原探查強化와 核燃料使用効率向上을 爲한 高速增殖爐의 早速한 商用化開發

現在까지 確認된 우라늄 埋藏量으로서 全世界의 原子力發電所稼働을 2030年代까지밖에 供給할 수 있는 量에 不過하므로 探查를 強化하여 確認埋藏量을 增大시키는 한편 核燃料利用効率을 높이기 위하여 高速 增殖爐의 商用稼働을 促進키 위한 開發을 強化함이 바람직하다.

3) 플루토늄의 國際管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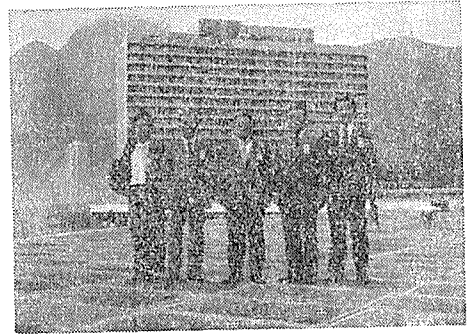
國際原子力機構憲章精神에 따라 核擴散에 直接 關聯되는 剩餘 플루토늄을 國際管理키 위하여 國際原子力機構管理 플루토늄 貯藏所에서 一括保管케 하는 方案講究

4) 高準位廢棄物處理方案의 早期實現

5) 보다 더 廣範한 安全措施의 適用

非但 核禁條約批准國에만 아니라 未批准國에도 國際原子力機構로부터 安全措施를 適用할 수 있도록 誘導한다.

等等의 問題로 要約케 된다. 마침 이번 總會가 브라질에서 開催되었기 때문에 브라질의 原



Nacional 호텔 國際會議센터 광장에 서있는 代表團

子力關係機關을 訪問할 좋은 機會였다. 브라질의 經濟水準은 今年度 1人當 國民所得이 \$965이며 우리보다 約2年程度 앞서 있으며 특히 原子力分野는 西獨과의 協力を 通해 發電用輕水爐의 段階的 國產化와 原鑛採鑛, 精鍊轉換, 濃縮, 再處理, 核燃料加工 및 廢棄物處理에 이르는 核週期를 自立化시킬 政策目標을 세워 이를 指向한 諸般計劃이 順調로히 進捗되고 있다. 可用水力資源이 北部와 東南部인 Amazon과 Parana 江等 豊富하여 推定水力發電可能量이 1,500萬kw에 達함에도 不拘하고 電力需要中心地인 São Paulo 나 Rio de Janeiro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莫大한 送電損失이 豫想된다고 한다. 따라서 電力需要中心地에 大대의인 原子力發電所를 建設하고 있다. 水力和 地下資源이 豊富한 부라질에서도 原子力發電을 서두르고 있는 形便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나라에선 더욱 時急한 것이다.

이번 總會의 雰圍氣는 石油波動以後 急激한 原子力發電增大로 因한 原子力の 에너지 源으로서의 實質的인 據頭와 1974年の 印度核實驗을 契期로 再考케된 原子力平和利用의 結實을 軍事的 利用에의 轉用可能性 增大에 對한 忌憂 그리고 第3勢力國家의 活潑한 움직임 등으로 엇갈린 表情이며 原子力平和利用의 에너지 源으로서 大規模活用に의 轉換點에선 國際的 陣痛期를 겪고 있는 셈이다. 지난 8.18事件과 9月初 內部權力鬭爭의 탓이 었는지 北傀代表團은 끝내 總會에 參席안 했고 우리代表團은 政治的 問題에 過히 神經을 곤두세우지 않고도 無事히 이번 總會를 마칠 수 있었다.